— F-175 —

한국인 고혈압 환자에서 베타2-아드레날린 수용체의 Glu27 다형성과 관상동맥 질환과의 연관성

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강원대학교병원 임상의학 연구소2

*최동욱 · 이동규 · 천광진 · 김우진 · 이봉기 · 이미은2 · 조병렬

배경 : 최근에 시행된 베타2-아드레날린 수용체의 Glu27 다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유전적 다형성이 관상동맥질환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고혈압 환자에서 베타2-아드레날린 수용체의 Glu27 다형성을 분석하고 이들 유전자의 다형성이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 **방법 :** 강원대학교병원 심혈관센터에서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받은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. 관상동맥조영술상 50% 이상의 의미있는 협착 소견을 보인 67명의 관상동맥질환 환자군과, 50% 미만의 의미없는 협착을 보인 44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베타2-아드레날린 수용체의 Glu27 다형성을 조사하여 양군에서 동질접합체 야생형(C/C), 이질접합체(C/G), 동질접합체 변이형(G/G) 유전자형의 빈도를 비교하였고 각각의 유전형에 따른 기본적인 임상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와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하였다. **결과 :** 관상동맥질환 환자군(n=67)에서 C/C, C/G, G/G는 각각 83.6%, 16.4%, 0.0%였으며, 대조군(n=44)에서는 각각 77.3%, 22.7%, 0.0%의 결과를 보여 양군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(p=0.406).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연령, 당뇨, 흡연, 그리고 고지혈증 등도 관상동맥질환과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연관성을 보여 주지 않았다. **결론 :** 한국인 고혈압 환자에서 베타2-아드레날린 수용체의 Glu27 다형성은 서양인에 비해 그 빈도(Glu27 allele frequency=0.09)가 낮게 관찰되었으며 관상동맥질환과의 연관성도 보이지 않았다. 본 연구에서는 대상 환자의 수가 적어 통계학적 의미를 두기 어려운 제한점이 존재하였으며, 향후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

— F-176 —

Atypical Symptom of Female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

전남대학교병원 심혈관계 중환자실

*이옥희 · 신은숙 · 정명호 · 유정은 · 박숙령 · 이숙자 · 최영자 · 박형욱 · 김주한 · 안영근 · 조정관 · 박종춘 · 강정채

Background :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differences in symptoms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(AMI) between men and women. Methods and **Results :**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all patients admitted at coronary care unit (CCU) under the diagnosis of AMI between Nov 2005 and Jun 2007. A total of 926 patients, 261 women and 665 men, were analyzed. Prevalence of risk factors was similar in both men and women, except for smoking (male 57.9% vs. female 7.3%, $p<0.05$). Typical symptom (chest pain) was the most common as an initial symptoms in both men and women. However, female AMI patients experienced dyspnea or other atypical pain more frequently (14.2% vs. 6.3%), and had higher Killip class above III (16.9% vs. 6.3%, $p<0.05$) than in male patients. **Conclusions :** Atypical symptom was more common in female AMI patients than in men and might be related with higher mortality in female patients..